

 금융위원회	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
	보도	2017.1.31.(화) 배포시	배포	2017.1.31.(화)	
책 임 자	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김 기 한(02-2100-2666)		담 당 자	전 은 주 사무관 (02-2100-2662)	

제 목 : 매일경제(17.2.1일자) “펀드·리츠 겸업 유명무실, 금융위 ‘뭉니’에 법 개정 한달째 등록 ‘제로’” 제하의 기사 관련

< 보도 내용 >

- ☐ 매일경제는 2017.2.1.(수) “펀드·리츠 겸업 유명무실, 금융위 ‘뭉니’에 법 개정 한달째 등록 ‘제로’” 제하의 기사에서,
 - “금융위가 금융감독원에 가이드라인을 내리지 않아 심사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.”
 - “가장 큰 논란은 자본금 요건이다...금감원 관계자는 “개정된 시행령이 자산관리회사도 추가로 자본금 20억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”고 말했다...금융위는 정작 책임을 다른 부처로 떠넘기고 있다.”고 보도

< 사실 관계 >

- ☐ 리츠 자산관리회사와 전문사모집합투자업간 겸업 허용과 관련하여
 - 최초 겸업 허용에 따라 전문인력·겸직·이해상충 방지장치 등 등록 이후 겸업과정에서 현행 자본시장법령과 상충될 수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현재 점검중이며 2월중에는 등록신청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므로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또한, 자본금 요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자본금을 요구할 계획은 없는 바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	<p>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</p>	<p>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</p>	 <p>넓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</p>
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